

# 지의와 원효의 '회통' '화쟁'은 닮았다

## 제4회 선리연구원 학술상 수상자 이병욱 고대 외래교수 주장

천태지(智顗·538-597)와 원효(617-686) 대사는 중국과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인물이다. 또한 지의는 천태종을 세운 인물이고, 원효는 크게 보아 화엄종 계열에 속하는 인물이다. 이처럼 긴밀한 연관성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두 사람의 사상에 상당한 공통점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다.

4월 제4회 선리연구원 학술상 수상자로 선정된 이병욱 고대대 외래교수는 6월 15일 AW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4회 선리연구원 학술상 시상식 및 학술회의에서 주제발표 '천태의 사상과 원효의 사상의 공통점 연구'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이병욱 외래교수는 그 첫 번째로 지의의 실상론의 핵심적 내용인 일심삼관(一心三觀)을 원효의 사상에서 찾았다.

이 외래교수는 "지의의 <유마경 현소>에서 일심삼관을 한 마음에 3000가지(10백배, 10여시, 3종류국토) 가능성을 갖고 있는 '일념삼관설'로 설명한다. 즉, 한 마음에 온갖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말이다"며 "이러한 내용이 <유마경현소>에서 '관조할 대상'이 되는데 그 핵심



이병욱 고대대 외래교수(가운데)는 6월 15일 열린 선리연구원 학술회의에서 천태지의와 원효의 두 사상에서 공통점을 찾았다.

은 공(空)이다. 이 공속에 가(假)와 중(中)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 '일심삼관'인데 이 내용이 원효의 <금강삼매경론>과 <대혜도경종요>의 대의(大義)부분에서도 발견된다"고 주장했다.

원효는 <금강삼매경론>에서 무이(無理)의 지이(至理), 곧 '이치 없는 것의 지극한 이치'를 말한다. 여기서 이치 없는 것은 공의 정신을 나타내고, 지극한 이치는 이치 없는 것의

'부정'을 통한 '긍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가와 일치한다. 즉 무이의 지이는 부정과 긍정을 합쳐놓은 것으로 중도의 맥락을 나타낸 것이라는 것이 이 교수의 주장이다.

이 교수는 또 "원효가 화쟁사상을 말한 것은 널리 알려진 것이지만, 지의의 사상에서도 회통(회통)을 제시하고 있다"며 "천태지의는 <유마경 현소>에서 실상이 불교의 여러 경전에서 다르게 불리고 있으므로 어느

한 쪽의 이름에 집착해 논쟁을 하지 말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천태지의는 진성해탈, 실행해탈, 방편해탈을 중심으로 해서 10가지의 3법을 회통하고, 원효는 포괄적으로 모든 불교이론을 화쟁하고 있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이 둘의 사상은 큰 틀에서 회통과 화쟁을 말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다"고 덧붙였다.

지의의 사상체계는 5사8교로 알

려진 교판론(敎判論)과 점차지관, 부정지관, 원돈지관의 3종류의 지관으로 구분한다. 이때 부처님이 중생을 인도해 깨달음에 들게 하기 위해 제시된 교판인 4실단(添權, 세계실단, 위인실단, 대치실단, 제일의실단)은 천태의 주요 사상인 교판론을 일으키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여기서 이 외래교수는 "지의의 4실단이 원효의 <대혜도경종요>에서도 발견된다"고 주장했다. 이 외래교수는 "원효는 4실단이 12부경전과 팔만사천의 가르침의 창고를 다 포섭한다고 주장하고, 4실단의 내용이 모두 실재여서 서로 위배되지 않는다고 말한다"며 "지의와 원효사상의 공통점을 통해 '불교의 현대화'에 대한 하나의 안목을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제4회 선리연구원 학술상 수상자로 선정된 최선일 문화재청 문화재감정위원이 '17세기 후반 조각승 승호의 활동과 불상 연구'를, 김용태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가 '한국불교의 종명론과 종주론에 대한 역사적 접근'을, 원혜영 대진대 외래교수가 '마라의 악몽'을 발표했다. 이너는 기자

## 부처님 두정골 사리 공개 中 창간사 지하공서 발굴

부처님 두정골(頭頂骨) 사리가 1000년 만에 발굴돼 6월 12일 봉안식을 하고 일반에 공개됐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13일 보도했다.

사리는 창간(長干)사 지하공에서 발굴돼 2년간 난징박물관이 보관해왔다. 난징 박물관은 2008년 7월 난징 대보은(大報恩)사 유적 발굴 과정에서 '북송(北宋) 진종(眞宗) 4년(1011년)에 창간사를 중건하면서 지하공을 만들어 아소카왕탑을 제작, 안치했으며 이 탑 안에 부처의 두정골사리와 감응사리, 제정사리 등을 모셨다'는 글이 새겨진 비석을 발견했다.

이를 근거로 창간사 지하공 발굴에 나선 난징 박물관은 2008년 11월 칠보(七寶)로 제작된 아소카왕탑을 찾아냈고 이 탑 안에서 금관과 은제에 보관돼 있던 부처 두정골사리 등도 발굴했다. 지하공에서는 또 부



두정골은 머리 뒤쪽 위를 덮고 있는 사각형의 편평한 뼈다. 황금으로 된 보관함의 맨 위에 얹어 손톱의 2-3배 크기로 놓인 것이 사리다.

처 정골사리 안치 과정을 상세히 기록한 비석도 출토됐다.

고고학자들은 이 사리가 북송으로 건너와 경전 번역 작업을 했던 북인도 스님으로 북송 초기 3대 고승으로 불렸던 시호(施護) 스님이 가져온 것으로 보고 있다.

부처 두정골사리가 보관됐던 아소카왕탑 역시 석가모니의 출생과 성불, 열반 과정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어 고고학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노덕환 기자

## 삶에 대한 공포에 '선' 대안으로

### 윤양호 교수 서양문화에 미친 선사상 고찰

지난 1세기 동안 서양사상과 종교, 문화에서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산업혁명과 1·2차 세계대전, 그리고 세계대공황을 겪으며 다다이즘, 제로운동, 플럭서스, 아방가르드 등 다양한 문화, 예술적 사조가 등장한 것이다.

20세기에 새롭게 등장한 서양 문화와 사조에 동양의 선(禪)사상이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고찰하는 연구가 발표돼 눈길을 끈다.

윤양호 원광대 교수는 6월 11일 동국대 다량관에서 열린 한국선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주제발표 '현대문화와 선사상: 서양문화의 중심으로'를 통해 서양 문화에 미친 선사상의 영향을 조명했다.

윤 교수는 "산업혁명, 1·2차 세

계대전, 경제공황 등 시대적 공황상태에서 절대적인 역할을 하던 기존의 종교는 그 역할을 담당하지 못하게 되자 서양인들은 그동안 억눌려 있던 내면적인 감성과 새로움에 대한 인식들을 반사회·반문화·반에에 대"고 설명했다.

이러한 현상은 20세기 초엽 일본 선에 영향을 받은 모네의 '수련' 연작을 필두로 했다.

윤 교수는 "1904년 모네는 자신의 집에 직접 일본식 정원을 만들고, 그 정원에 동양의 식물들을 심고 가꾸며 동양문화를 자신의 삶에서 구현하며 변화를 가졌다. 그는 정원을 가꾸며 수련 등의 작품을 만드는데 이러한 노력은 일본문화가 서구에 확

산되는데 큰 기여를 했다"고 덧붙였다.

이후 1915년에 등장한 다다이즘은 "수많은 모순을 일태한 전통의 모순은 모두 무(無)로 되돌려서 백지상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표방한다.

윤 교수는 "기존의 전통 질서를 철저히 거부하는 다다이즘은 진리에 부합하지 않으면 송두리째 허물어버리는 자제인 선의 칼날 정신에 닿아있다"고 분석했다.

불교에 대한 관심은 1922년 헤르만 헤세가 쓴 <신타트라>로 인해 더욱 증가한다. 신타트라는 당시 전쟁의 아픔을 겪고 있는 유럽 청년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됐기 때문이다. 윤 교수는 "자신이 원하지 않는 전쟁을

겪은 서양인들은 정치와 종교의 역할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고 불교는 그 새로운 사상적 대안으로 떠올랐다. 불교는 절대적인 힘의 논리가 아닌 자신의 내면을 관조해 삶의 지혜를 스스로 찾아가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후 윤 교수는 아방가르드와 제로운동, 플럭서스(Fluxus), 포스트모더니즘, 히피 문화의 등장을 사례로 서양 문화와 선의 영향을 조명했다.

제로운동은 1957년에 나타난 예술가들의 집단운동이다. 윤 교수는 "전쟁을 체험한 세대들은 삶의 존재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공포를 느끼고 있었고 이러한 대안으로 불교와 선사상을 접목했다"고 설명했다.

1962년에 나타난 플럭서스는 고급 예술을 멀리하고 대중 예술을 지향해 퍼포먼스와 유연한 글쓰기, 실험주의, 우상 파괴, 미니멀리즘 등을 특징으로 한다. 윤양호 교수는 "플럭서스는 전통질서에 대한 반발과

거부를 넘어 사고의 유연성과 깊이를 보여준다. 그로 인해 종교 인식에 변화가 생겼다. 선 사상이 서구 사회에 확산되면서 전통 종교가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교수는 일본과 베트남 등의 나라에서는 불교를 서양에 전파하는데 일찍부터 힘써왔지만 우리나라는 숭산 스님의 시대에 이르러서야 선 불교 전파를 시작하게 된 것에 대한 아쉬움도 표했다.

윤 교수는 "선사상과 불교문화에 열은 1900년대 초기 주로 일본, 중국, 티베트, 베트남, 스리랑카, 태국, 캄보디아, 네팔 등의 나라에서 많은 승려들과 서적들이 건너가 번역되고 소개 됐으나 한국불교의 경우 1980년대부터 숭산 스님의 큰 역할로 소개되기 시작했다"며 "아직도 한국불교와 한국 선에 대한 인식은 미진하다.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된 연구와 함께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작업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너는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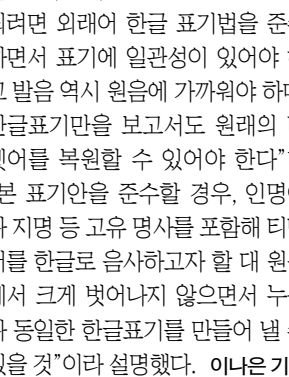
## '티벳어 한글 표기안' 발간 東大 티벳장경연구소... 음운론 등 담

동국대 경주캠퍼스 티벳장경연구소(소장 김성철)는 <티벳어 한글 표기안>(사진)을 발간했다. 42페이지의 소책자에는 △티벳어 음운론 △티벳어 한글표기 △티벳어 어휘론 △티벳어 한글 표기안을 따른 음절표기의 실제 등이 실렸다.

티벳장경연구소는 3월 <티벳어 한글 표기안> 만들기 연구를 시작했다. 연구 과정에는 맨진 남카 스님(티벳장경연구소 연구원)과 최남 겐첸 스님(부산 한국-티벳센터 주지)이 동참했다. 한국인 전문가로는 최연철 박사(티벳장경연구소 전문연구원), 박은정 객원 연구원이 참여했다.

<티벳어 한글 표기안>은 표준어인 중앙티벳어(라싸어)의 발음에 토

대를 두고 표기의 일관성을 가장 중시했다. 김성철 소장은 "이상적인 티벳어 한글 표기안이 되려면 외래어 한글 표기법을 준수하면서 표기에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 발음 역시 원음에 가까워야 하며, 한글표기만을 보고서도 원래의 티벳어를 복원할 수 있어야 한다"며 "본 표기안을 준수할 경우, 인명이 나 지명 등 고유 명사를 포함해 티벳어를 한글로 음사하고자 할 때 원음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 누구나 동일한 한글표기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 설명했다. 이너는 기자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어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약 40도로 급냉해 보존된 두리안이 딱기 좋은 상태로 배송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판매 및 문의

■ 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031-797-1357  
Fax 031-881-1350 긴급전화 : 011-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조명숙)

한국근본불교조계종

**경남교구 본산 주지 공개모집**

한국근본불교조계종 제 14교구 경남 총무원 청정사 주지를 공개 모집합니다.

- ◆ 자격 : 법당 10년이상 비구, 비구니로 한국근본불교조계종 종도로서 활동하며 청정사 중창불사에 전념할 수 있는 스님
- ◆ 대우 : 종신 주지 및 자사상승보장 (종단에 소정의 후원금 지급 요)
- ◆ 자산 : 법당 30평, 요사 20평, 선방 50평, 산신각, 석불, 석탑 등 대지 630평, 임야 7400평 등

**총무원장 의륜 합장**

- 주 소 : 경남 합천군 청덕면 초곡리 820번지
- 문의전화 : 011-352-7751

강릉 인월사 담마선원

**위빠사나 집중수행 안내**

지혜와 자비를 개발하는 불교명상법인 위빠사나 집중수행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불교인 뿐 아니라 종교에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푸른 숲속 향기와 목초 향토방 선원에서 깨달음의 휴식을 가져 보십시오"**

일정	지도	인원	대상
2010년 7월 3일 - 7월 9일 [6박 7일]	우도다나 사야도	15명 (선착순)	일반인

- 수행장소 : 강원도 강릉시 경포 저동 6-2번지 인월사 담마선원 (향토방에 옥실과 화장실 완비)
- 수행내용 : 좌선, 행선, 일상생활수행 매일 수행 점검을 위한 사야도(큰스님)의 면담과 법문이 있음
- 입제 및 회향 :
  - 시작 날 - 7월 3일 토요일 오후 5시
  - 끝나는 날 - 7월 9일 일요일 오전 12시
- 참가비 : 20만원 (우체국 201780-01-001463 예금주: 담마선원)
- 준비물 : 수행에 관한 북장, 세면도구, 방한소울, 팔기도구
- 문의 및 접수 : ☎ 담마선원 033)644-1686 email: dhamma53@hanmail.net

**우란분절(백중) 지장경 산림법회 및 자비도량 참법기도**

지옥중생이 남아 있는 한 성불하지 않겠다고 원을 세운 지장보살님과 시왕(명부)을 모신 지장기도영험도량에 있는 **천도재·산림법회**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 ◆ 법사 : 석 혜는 스님 (전, 해인사 율원장)
- ◆ 일시 : 불기 2554년 5월 25일 (양, 7월 6일) ~ 7월 15일 (양, 8월 24일)
- ◆ 조상, 태아령 영가 천도 - 오전 10시 자비도량 참법 기도
- ◆ 지장경 산림법회 - 오후 2시

금강경으로 장엄한 법당, 시왕(명부)을 모신 지장기도 영험도량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중리 1077-6번지

**수정사 성천 합장**  
052)225-0068, 0177